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3

첫 번째 단계의 이김

(2)

교회 생활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됨

성경: 아1:9-16상, 2:1-4

- I. 첫 번째 단계의 이김에서(아1:2-2:7)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는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힘으로 세상의 매력을 이긴다—1:2-4, 마4:16-20, 눅9:23-24, 히12:2, 13:13, 찬송가 333장.
- II.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그것은 그분의 사랑스러움에 달려 있다—아5:10-16.
  - A.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전체가 사랑스러움의 문제이다—찬송가 138, 141, 142장.
  - B.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일단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아1:2-4, 막12:30, 고전2:9.
  - C. 주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시며 그분의 모든 연인들도 사랑스럽게 만드신다—아4:10.
- III.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분을 사랑한 후, 우리는 반드시 유일한 한 공과—복종함—를 배워야 한다—1:9-11.
  - A.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의지의 복종에 대해 말한다—10절, 4:1, 4.
  - B. 우리의 의지가 복종될수록 우리는 더 변화될 것이다.
    1. 1장 10절에서, 사랑하는 분은 추구하는 이가 그분께 순복하는 사랑스러움(땀은 머리털로 아름다운 두 뺨)과 변화시키시는 영에게 순종하는 그녀의 아름다움(구슬 꿩미가 있는 목)을 감상하신다.
    2. 4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연인의 순복과 순종 가운데서 그녀의 아름다움(무리 염소 같은 머리털)을 본다.
    3.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분께 순복하는 의지(다윗의 망대 같은 목)를 가져 아름답다.
- IV. 그리스도의 연인은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아름답게 된다—1:7-2:4.
  - A. 우리가 이기는 이들인가 패배한 이들인가는 우리의 혼의 변화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롬12:2.
    1.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은 사실상 그분의 왕국을 시행하심이다.
    2. 변화는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성한 신진대사로 바뀌는 것이다—아1:9-11, 15, 2:1-2.

- B.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고후3:18.
1.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그 영의 개작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한다—아1:9-16상, 2:1-2.
  2. 변화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추구하는 믿는이들 속으로 밀어 넣어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롬12:2, 9-21.
- C. 그리스도의 연인은 타고난 강한 사람(말)에서 단일한 눈(비둘기 같은 눈—마3:16, 10:16)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백합화—마6:28)으로 변화된다.
1. 그분은 그 영에 의한 단일한 눈(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분을 앙망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신다—아1:15.
    - a.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아름다움 중 두드러진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단일한 눈이다—마6:22.
    - b. 비둘기 같은 눈은 주님을 응시하는 데서 오는 영적 투시력을 상징한다—고후3:18, 히12:2.
  2.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후에 그녀는 백합화가 되는데, 백합화는 그녀가 이제 자신의 타고난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아2:1-2.
- D.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떤 ‘변화시키는 이들’—추구하는 이들을 도와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돕는 온전케하는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1:11, 엡4:11-12.
1. 그들은 추구하는 이의 표현(뺨)에 있는 장식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금사슬)을 가진 그 영의 변화시키심을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게 함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한다—아1:10-11.
  2. 온전케 된 이들은 그 영과 협력하여, 추구하는 이를 아름답게 하는데, 그것은 구슬껍데기로 표현된 신성한 생명을 가진 변화시키시는 영의 분배를 통해서이다—10절.
- E. 변화는 잔치이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처럼 왕의 상에 앉아 왕의 풍성을 누린다—12절, 삼하9:1-13.
1. 다윗은 므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고, 그의 유업을 회복해 주었으며, 그를 초대하여 그와 같은 상에서 잔치를 누리게 했다—7절.
  2. 므비보셋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받은 후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주목했을 뿐 상 아래 있는 그의 저는 다리를 주목하지 않았다—4:4, 9:13.
  3.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저는 다리’는 잊어버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화를 위해 누려야 한다—아1:12, 2:4, 히12:2, 엡3:8, 찬송가 403장.
- F. 그리스도의 연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향기를 토하는 나도 기름과 같다—아1:12, 막 14:3, 요12:3.
1.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연인의 나도 향유 가운데서 표현되었다—아1:12.
  2.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 나도 향유가 되어야 한다.
  3.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족게 하시어 우리가 나도 향유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나도 향유 안에 있는 그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만족게 한다.
- G. 그 연인과 사랑하는 분 모두가 아름다우며, 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이것은 변화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인 사이의 상호 감상을 산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15-16상, 사33:17상, 시45:11상.